

개발 무산위기 무안기업도시 활로 찾나

중 투자사 청산 대응 미흡 지원단장 대기 발령... 인적쇄신 나서

무안군이 인적 쇄신을 통해 중국 투자사 철수로 존폐위기에 놓인 무안 기업도시 조성사업 활로 모색에 나섰다. 무안군은 20일 한·중산단 조성사업의 업무를 맡고 있는 기업도시건설지원단 전모(53) 단장을 행정지원과로 대기발령했다.

자치단체에서 공무원들의 행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징계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전 단장은 무안군이 추진한 기업도시의 초창기인 지난 2006년부터 업무를 맡아 왔으나 최근 한·중산단의 특수목적법인인 한·중 미래도시개발사가 중국 측의 요구로 청산 절차에 들어가면서 책임론이 부상했다.

이번 징계는 중국 측이 한중미래도시개발사의 주주총회를 개최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가고 청산을 기정사실화하는데도 적절한 대응을 하

지 못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보인다.

또 특수목적법인인 한중미래도시개발사 지분의 절반이 넘는 51%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 측의 대화 창구 교체 요구도 함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윤성호 무안군수 권한대행은 중국 측 정책 결정자들의 의중 파악을 위해 지난 13~15일 중국을 다녀온 뒤 전 단장의 전격적인 징계를 결정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서부취재본부=김민준기자 jun@

무안군 관계자는 “전 단장의 징계는 법인 청산절차에 대한 사전대처 미흡과 중국 측의 인적쇄신 요구에 따른 것”이라며 “당분간 김갑순 기획실장이 단장직을 겸임해 인적쇄신과 법인의 지분정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안 한·중산단은 담초 개발면적 17.7km에서 5km로 축소하는 계획변경 승인을 정부로부터 받았으나 지난 1일 주주총회에서 중국 측의 청산의결로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웰빙식품 진도 봄동 입맛 색취

진도 주민들이 들녘에서 겨울철 대표적 농산물인 봄동배추(일명 떡배추)를 수확하고 있다. 한겨울 매서운 비닷 바람을 맞고 지란 달콤한 배추인 봄동은 웰빙 식품으로 도시소비자들의 인기를 모으고 있다. (진도군 제공)

해남군 균형발전 소통창구
자율토론 모임 마중물 운영

무안군, 질소과다 검출 상수도 개선키로

해남군이 균형발전을 위한 자율토론 모임인 ‘마중물’을 운영한다.

‘마중물’은 직원 18명이 참여해 주요 시책에 대한 공무원들의 진솔한 의견을 가감 없이 수렴하고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하게 된다.

회원들은 그동안의 관행과 제도개선을 위한 내용, 군정 주요 분야에 대해 토론을 할 내용 등을 선정해 목록을 작성키로 하고, 각자 제안할 분야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다음 모임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마중물’이 직급과 소속에 구별없이 자율적으로 구성된 만큼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는 ‘소통’, ‘성장’의 참구역할을 담당해 나갈 것을 결의하며, 매월 2회 모임을 통해 다양한 논의를 펼쳐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무안군이 소규모 마을상수도 시설 55개소중 35개소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질산성 질소 성분 등이 검출됐다(광주일보 2월 20일 10면)는 보도 이후 먹는물 공급 안전대책 마련에 나섰다.

군은 지난해까지 400여억원을 들여 장흥읍에서 공급되는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을 추진한데 이어 올해 68억 원 등 오는 2014년까지 210여억원을 더 투자해 2단계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6억원의 예산을 별도로 투입해 지하수 수질오염 마을부터 지방상수도 공급공사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4억원을 투자해 일로읍과 몽탄면 소재지의 노후관을 교체해 물 이용률을 현재보다 10% 끌어 올린 85% 수준까지 높여 나갈 방침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규모 수도시설 지하수 56개소에 대해 지방 상수도가 공급될 때까지 매 분기별 수질검사시 비소(As) 항목을 추가해 검사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김민준기자 jun@

군 산림조합은 조합발전은 물론 경영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매년 이용도 및 출자금 배당과 함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황귀순 조합장은 “도시지역 특수여건상 3300여 조합원의 결속된 사업 참여와 금융 이용도가 낮아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신용사업 활성화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조원남기자 wncho@

‘목포 어린이 바다체험과학관’이 오는 9월 정상 개관을 앞두고 막바지 공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목포시는 지난 17일 시청 상황실에서 자문위원, 시공업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기초과일공사와 지붕공사, 외벽 창호 및 문틀공사 등 건축분야 공정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전시공사 추진을 위해 ‘전시분야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바다체험 과학관은 삼화도내 부지 7130㎡에 117억원을 투입해 201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서부취재본부=임영춘기자 lyc@

“농업인에 차별화된 금융서비스 제공”

김정오 농협중앙회 완도군지부장

“지역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취임한 김정오 농협중앙회 완도군지부장은 “식(食)사랑·농(農)사랑 운동을 통해 농업의 소중함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또 “다음달 2일 NH농협은행의 새로운 출범을 맞아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더욱 신뢰받는 농업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완도 금융출신인 김지부장은 광주 동신고와 조선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지난 1987년 농협에 첫발을 내디딘 후 중앙본부 유통기획과장, 전남지역본부 유통사업부장, 감사팀장, 총괄팀장 등을 지냈다.

가족으로는 부인 박애숙씨와 사이에 1남1녀가 있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



신안 산림조합, 조합원 자녀에 장학금

신안군 산림조합(조합장 황귀순)이 지난해부터 2년 연속 조합원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사업을 펼쳐 호평을 받고 있다.

군 산림조합은 지난해에 이어 최근 열린 2012년도 조합 정기총회에서 환원사업 일환으로 조합원 자녀중 장학

생 20여명을 선발해 장학금 1000만원 을 지급했다.

신안군 산림조합은 목포시와 신안군 관할 지역조합으로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말까지 매년 136%의 자산 증가율을 보이며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서부취재본부=조원남기자 wncho@

전 북

전주한옥마을 한국대표 관광지로

정부, 지방브랜드 세계화 사업 선정... 10억 지원

전주 한옥마을이 ‘한국 관광의 별’, ‘국제슬로시티’ 등에 이어 ‘지방 브랜드 세계화 사업’에 선정되며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돋움 하고 있다.

20일 전주시에 따르면 한옥마을이 최근 행정안전부의 ‘지방브랜드 세계화 시범사업’ 대상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도시명소나 축제를 중심으로 한 자치단체의 브랜드를 세계적 도시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전략사업으로, 관광홍보 등에 최고 10억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정부에서는 세계적 관광지로 육성 하기 위한 후속 대책을 추가로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선정은 한옥마을이 ‘사람이 실제 살면서 전통문화와 어울리는 공간’이라는 점이 반영된 결과라고

한다.

사람이 거주하는 국내 유일의 전통 문화공간이라는 장점이 다시 한번 평가받은 것이다.

이런 장점을 배경으로 한옥마을은 2010년부터 한국 관광의 별, 한국 관광 으뜸명소, 국제슬로시티 등에 잇따라 선정됐다.

전주시는 앞으로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을 확산하는 등 전 세계 관광객을 유치할 방안을 마련하고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송하진 시장은 “전주 한옥마을이 관광 분야의 그랜드슬램을 달성하게 됐다”면서 “전주와 한옥마을을 세계에 알리는 마케팅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세계적 명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밀밭 밭기’ 어린이들의 흥년기원

전주지역 어린이들이 최근 전주시 성덕동 우리밀 재배단지에서 흥년 농사를 기원하며 밀밭을 밭고 있다. 밀밭 밭기는 겨울 추위로 들 뜬 밀뿌리를 땅에 밀착시켜 튼튼하게 자라게 하기 위한 것으로, 정월 대보름을 전후로 이뤄진다.

/연합뉴스

도내 중·소형 주택 2만5000가구 공급

올 하반기부터 2014년까지... 매매가·전세금 안정 될 듯

도내에 올해부터 2014년까지 3년 간 중·소형 주택 2만5000여가구가 공급된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아파트 매매가·전세금이 안정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5719가구의 공동 주택에 이어 내년에 9709호가 준공된다. 2014년에는 1만여 가구가 준공되는 등 3년간 총 2만5000여가구가 공급된다.

도는 이처럼 준공 물량이 쏟아지면 서 수요·공급이 균형을 이룰 것으로 보이며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는 서민의 내집 마련이 한결 쉬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반증하듯 국민은행 부동산가격동향 조사자료에 따르면 최근 도내 월별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은 2011년 10월 1.2%, 11월 1.4%였으

주택건설업체의 사업 참여 중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융통성 약화 등으로 소형 임대아파트의 공급차질이 빚어져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며 “올해부터 신규 아파트가 속속 준공, 공급됨으로써 서민의 내 집 마련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전주시 놀이터·공원 17곳에 CCTV 42대 설치

전주시는 범죄 예방을 위해 올해 5억원을 들여 어린이 놀이터와 공원 17곳에 폐쇄회로(CC)TV 42대를 설치한다.

CCTV가 설치되는 지역은 아동이 여성을 상대로 하는 범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판단되는 곳이다.

CCTV는 전주 덕진과 완산경찰서

에서 24시간 모니터링을 해 범죄가 발생하면 즉시 출동하게 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효과가 크면 이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라며 “어린이나 여성을 상대로 한 성범죄 등을 막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뉴스 브리핑

전주 공예명인관 내달부터 전통공예 교실 운영

전주시 공예명인관은 시민을 대상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도내 무형문화재 명인 및 전통공예 작가와 함께하는 ‘전통공예 교육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통 침선(針線)교육’은 3월부터 4월까지 전주 무형문화재 침선장 최은순 명인과 함께 진행한다. 또 ‘전통자수 교육’은 전통자

수 조미진 작가와 함께 실생활에서 필요한 소품위주로 실시된다. 5월부터 12월까지는 전통 목가구 만들기과 지(紙)우산 만들기 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주문화재단(063-288-9383)을 통해 이뤄지며 사전예약(선착순 10명)으로 진행한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남원 농특산물 올 수출 목표 2800만 달러

남원시는 올해 지역 농·특산물 수출목표를 2800만 달러로 설정하고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펼친다.

남원시는 최근 관내 20여개 수출업체 및 수출생산단체(농협)와 간담회를 갖고 농·특산물 수출확대에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시는 3월중 관련업체와 수

출협의체를 구성해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공유와 공동 마케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남원 농·특산물 해외시장 수출 확대에 명실상부한 수출도시의 위상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백성기자 bs8787@

김제소방서 대형화재 취약 대상업소 예방 강화

김제소방서가 관내 대형화재 취약대상 업소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김제소방서는 최근 취약대상 지역인 김제시 용지면 GS칼텍스 전주 저유소를 방문해 현장 지도점검과 함께 대형 화재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유영철 서장은 “예방활동을 강화해 대형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소방 안전관리 교육과 방화순찰을 통해 대형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북취재본부=홍윤선기자 hnews@

순창군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지원 사업 추진

순창군이 경제적 어려움과 이국생활로 힘든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3년이상 순창군에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이주여

성중 2년이상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 가정 10세대이다. 이들에게는 왕복항공료 실비 전액과 현지 교통비 및 방문선물 구입비 50만 원을 일괄 지급한다.

문의(063-650-1203)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김제시 밤길 불편해소 ‘가로등 3920팀’ 운영

김제시는 시민들의 야간 통행 안전과 불편해소를 위해 ‘가로등 3920기동팀’을 운영한다.

‘가로등 3920’은 김제시 가로등·보안등의 총괄관리 부서의 전화번호(063-540-3920)에서 이름을 따왔다.

그동안 시는 가로등·보안등 고장시 민원접수로 3일 이내에 보수 완료되고 고장 수리에 나섰으나 지연처리 사례 발생 등으로 인해 주민들이 야간활동에 불편을 겪어왔다.

기동팀은 가로등과 보안등의 불편사항을 신속한 처리하고 안

전한 야간통행을 위해 상시 가동된다.

기동팀은 보안업체와 상시 협력시스템을 구축, 신고 접수시 함께 신속히 출동해 가로등을 보수한다.

이와 함께 시와 읍면동, 업체를 담당하는 2개반을 편성해 지역을 돌며 사전 점검도 실시한다.

김제시 관계자는 “가로등 기동팀 운영이 가로보안등 관련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 시민들의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홍윤선기자 hnews@